"마을마다 뭔가 차별화를"

황정수 무주군수, '마을로 가는 축제' 분석 평가 간담회서 주문

무주군은 지난 11일 안성면 통안 마을에서 마을로 가는 축제 3/4분기 분석 평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11일 안성면 통안 마을에서 마을로 가는 축제 3/4분기 분석 평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정수 군수와 마을로 가는 축제 참여 20개 마을의 대표와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마을로 가는 축제 운영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마을 별 애로사항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보완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황정수 군수는 "2015년에 시작해서 3년차, 이제는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할 때"라며 "무주하면 반딧불이가 떠올려지는 것처럼 마을마다 특성화·차별화된 뭔가를 발굴·육성하는데 주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무주 마을로 가는 축제는 주민들 스스로 마을 고유 자원을 기반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시민과 함께 하는 도농교류 축제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농·산촌 체험과 맛, 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사계절 축제로 운영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운영 첫 해인 2015년에는 11개 마을이 참여했으며 반딧불축제(9일)와 농·특산물대축제(3일) 기간에 개최해 총 4,511명이 방문, 8,400여 만 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다.

2016년도부터는 사계절 축제로 확대해 19개 마을이 참여(38,181명 방문, 5억8,000여 만 원 매출)했으며, 올해는 20개 마을이 동참(10월 현재 41,063명 방문, 6억9,000여 만 원 매출)하고 있다.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되는 '코레일과 함께하는 마을로 가는 축제'를 비롯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농·특산물 대축제와 연계한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마을로 가는 축제 참여 주민들은 "평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마을자원들이 마을로 가는 축제를 통해 보물이 되고 있다"며 "덕분에 돈도 벌고 마을도 깨끗해지고, 사계절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에 생기가 돈다"고 전했다.

무주군은 마을공동체사업인 마을로 가는 축제를 소규모 마을형 6차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여기에 주민들 간의 정(情)을 더하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규제개혁 우수제안 7건 선정

진안군은 11일 하반기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안 심사를 통해 7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8월 10일까지 25일간 새 정부 규제 정책방향에 맞춰 일자리,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청년창업, 소기업·소상공인 분야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자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공모에 접수된 개선과제 67건을 대상으로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1차 실무부서 검토 후, 최종 선정된 24건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다.

우수제안 심사결과 수상자는 모두 7명(금상 1, 은상 1, 동상 1, 입선 4)으로 △금상 '소규모 제조업소 해썹(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적용개선', △은상 '중소기업 창업지원 제외업종 개선', △동상 '음식·숙박업 간이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 부가가치세 면세'가 각각 선정됐다.

입선으로 선정된 제안은 △4명 이하 근로자 사업장 근로시간과 휴식적용 기준 확대 △푸드바이크 청년창업 프로젝트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신고 절차개선 △농업진흥구역내 주택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완화가 선정됐다.

선정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건의를 통해 법령 등 개정작업을 거쳐 규제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17일 실시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오는 17일 오후 3시~4시까지 한누리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처음으로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을 관계기관(보건, 경찰, 소방, 군부대 등) 합동으로 실제 훈련참여자 6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할 계획이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은 생물테러 발생시, 보건,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한 상호통합, 공조대응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위기관리능력 배양과 실제 상황발생 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생물테러 예방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훈련의 주된 목적과 의미가 있다.

이번 모의훈련 설정 상황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행사장에 탄저균 의심가루 발견을 가정하여 진행된다.

주요 훈련내용은 ▲사건 발생에 대한 신고 및 관계기관에 상황전파 ▲현장출동 및 통제 ▲노출자 대피 ▲정황조사 및 응급의료소 설치 ▲환경검체 채취 및 검체이송 ▲테러범 검거 등의 과정으로 시연될 예정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테러 예외지역이 아니다"며,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관계기관이 협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11일 장계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노인의날 기념행사 개최

장수군, 면별로 효행자 수상 · 노인위안잔치 가져

장수군은 제21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 11일 장계면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각 읍·면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 및 효행자 수상, 노인위안잔치 등을 가질 예정이다.

대한 노인회 장수군지회 각 읍면분회 주관으로 마련된 노인의 날 행사는 UN이 정한 노인의 날을 기념,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해 어른 공경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 첫날(11일) 장계면(면장 이길재)에서는 국민체육센터에서 노인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노인회장수군지회 장계면분회(회장 임경춘)가 주최하고, 장계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송원영)가 주관한 이 행사에서는 한영희 부군수와 유기홍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양성빈 도의원,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최봉선 회장 등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하여 노인의 날을 축하했다.

기념식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및 지역문화를 교류하는데 앞장선 공로로 송원영 주민자치위원장과 평소 노인공경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면사무소 하장미 직원이 감사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따뜻한 마음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한옥희씨가 효행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평양예술단 공연을 시작으로 신바람 이박사, 이애란 등 흥겨운 노래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이 더했다는 호평이 뒤따랐다.

임경춘 노인회장은 이 날 기념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해주신 어르신과 단체회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고령화시대가 도래한 만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모범 어르신 · 효행자 23명에 시상

진안군은 11일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문예체육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주관으로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800여 명의 지역 노인들이 함께했다.

'어른다운 노인으로, 노인회는 노인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노인이 존경받고,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한노인회의 의지에 부응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과 경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전행사로 부채춤, 민요, 색소폰 연주 등 어르신들을 위한 흥겨운 무대공연이 펼쳐졌고, 기념행사에서는 모범 어르신 및 어르신을 잘 섬기는 효행자 23명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이항로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노인복지서비스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노인공동생활가정인 사랑나눔방 운영, 행복버스 운영, 100원 순환택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무료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메아리

진안 마이산신제 봉행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전설이 얽혀 있는 마이산의 신령에게 풍요를 비는 마이산신제가 11일 오후 마이산 남쪽 자락 은수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항로 진안군수와 박명석 군의장을 비롯한 마이산신제 위원들, 지역 기관단체장과 유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헌례와 아헌례, 종헌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마이산은 예로부터 지리산, 월출산, 적상산과 함께 신라시대부터 산신제를 모셔오고 있는 명산이다. 조선 태종 13년(1413년) 왕이 친림하여 10월 12일 산신제를 직접 모신 것을 기념으로 이날을 진안군민의 날로 정하고 전야인 10월 11일 마이산 은수사 제단에서 매년 산신제를 봉행해 오고 있다.

초헌관을 맡은 이항로 군수는 "'군민의 날'과 '진안홍삼축제'(10. 19~10. 22)를 맞아 군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고 모두가 화합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하반기 폭력예방교육 실시

무주군은 11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하반기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성희롱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상반기 교육 미 이수자)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초빙된 파주심리상담소 김신현 소장은 '생각을 바꾸면 행동도 바뀝니다'라는 주제로 △4대 폭력의 실태와 발생 원인 △폭력 유형별 예방대책과 처벌규정 등을 사례를 통해 강의했다.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는 무주군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원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보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관의 역할 이해, 사례분석, 상담기법 등의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장수군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장안산 군립공원 입구(무룡고개) 및 안전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제259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군은 가을철 건조기 산불예방 활동과 가을 행락철 유원시설 등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입산자를 대상으로 산불예방계도 활동과 가을철 안전산행 요령 등 사고예방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생활주변 안전취약시설, 불안전요소 발견시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